

“J프로젝트? 그건 땡의 사정”

농어촌공사 끝내 ‘알박기’… 송천지구 유리온실 오늘 MOU

전남도, 나머지 부지 활용 방안 등 대책 마련 착수

한국 농어촌공사는 ‘알박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자유치가 이뤄진 전남도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지역 중 핵심지역인 해남 송천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 건립을 강행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24일 송천지구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업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송천지구는 전남도의 J프로젝트 사업

지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 J프로젝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한국 농어촌공사 영산강개발사업단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한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사무실에서 한국 농어촌공사와 해남군, 농업회사 간 사업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영산강 사업단은 애초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지구(산이 2-1공구) 현

장에서 착공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 등을 감안해 착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협약 체결만 갖기로 해 사실상 착공이나 다행없는 셈이 됐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간척지인 영산강지구(산이 2-1공구·713ha)에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한빛 들 주식회사와 (주)장수체, 삼호용양(주) 등 사업자 3곳을 선정하고

사업지 713ha 중 기반시설 사업지를 제외한 510ha를 기초조사와 측량·토양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권한까지 부여했으며, 이번 협약체결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 대규모 외자를 추진해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려던 J프로젝트 송천지구 개발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곳을 간척지로 개발해 소유권이 있는 농어촌공사의 협조 없이는 전남도의 송천지구 사업은 진척을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 송영종 전남도 투자국장은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착공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J프로젝트 송천지구 사업은 애초 계획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사업부지가 송천지구 사업에 정지(1천 566ha)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만큼 J프로젝트 전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개발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다양한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농어업회사 부지를 빼나며 부지 활용하는 방안과 인근의 다른 간척지를 농어촌공사에 요구하는 방안, J프로젝트 초송천지구의 일부 부지를 송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주에 20m 크리스마스 트리

호남신학대 3억 들여… 성탄 명물 될듯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광주를 환하게 비춘다.

광주시 남구 양립동에 위치한 호남신학대학교는 신축중인 기숙사동 8층 옥상에 20m 높이의 크리스마스 타워(빛과 섬김의 탑)를 세우고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점등식을 갖는다.

대형 트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시청앞 트리가 8m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세워지는 타워는 높이가 두배가 넘는 대형 조형물이다. 3억원이 투입된 크리스마스 타워는 매년 12월과 1월 두달 동안 불을 밝히게

된다.

양립산 기슭에 자리잡은 호남신학대에서 바라보는 무등산은 ‘광주 8경’ 가운데 하나로 꽁꽁 묶히는 곳으로 학교측은 기숙사동에 태워 설치한 후 무등산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8층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타워가 들어서는 기숙사동의 높이가 해발 98.5m에 달해 이곳에서 무등산을 더욱 잘 조망할 수 있으며 타워 역시 광주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광주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운전면허 시험 문제 공개 추진

경찰청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문가 공모 등을 통해 1천 문항을 뽑아 문제은행을 만들어 교재로 발간할 예정이다.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는 40문항이며 합격선은 1종은 70점, 2종은 60점이다.

경찰은 학과시험을 공개하면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응시자들도 불편



없이 학과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은행 공모와 교재 발간 등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학과시험 문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년 7월까지 PC 시험을 보지 않는 전국 13개 면허시험장에 PC 시험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 응시자를 위해 현행 종이 학과시험은 병행된다.

/연합뉴스

디중이용시설 ‘안전이 최고’

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남구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전을 주제로 한 강의와 공연이 진행됐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월출산 등 국립공원 4곳 2등급 승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지역 분류체계(1~6등급) 상 5등급에 속했던 다도해 해상, 월출산, 주왕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4곳의 등급이 2등급으로 승격됐다고 23일 밝혔다.

IUCN의 분류체계상 5등급은 관광이나 휴양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육·해상경관 보호지역’을 의미하지만, 2등급은 자연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목적의 방문객 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을 뜻한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립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오대산, 월악산 국립공원과 함께 9곳으로 늘

어났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20곳 중 11곳은 아직 IUCN 분류체계상 5등급에 속한다”며 “앞으로 2등급 비율을 45% 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IUCN 분류체계는 1978년 개발된 이후 전 세계 자연보호지역 분류에 이용되고 있으며, 2004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 기준으로 채택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영산강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광주시가 지역 내 다양한 생물자원을 전시하는 ‘국립 영산강 생물자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호남권 고유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생물산업 진흥을 위해 생물자원관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24일 오후 3시 전남대 과과대학에서 국립 영산강 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도시화, 산업화, 환경오염 등 때문에 급격히 사라지는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산강 생물자

원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착공시기는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위원, 공무원 등 9명으로 실무팀을 구성해 영산강 생물자원관 건립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건립부지까지 확보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중부권·영남권 등 6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계획을 수립해, 1997년 인천(수도권)에 이미 건립했으며, 충남 서천(중부권)과 경북 상주(영남권)에서는 건립중에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보조금 부정수령’ 벌금 최대 1천만원

3년간 수령 금지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최장 3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벌금도 최대 1천만원까지 내야 하는 등 보조금 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리고하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보조금 심의평가(가칭)’를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권익위 보조금 신고사건에 대한 검·경찰, 감사원의 처리 결과 비리금액은 44억여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NETHERLANDS MARITIME UNIVERSITY 해운물류학 석사과정 학생모집

네덜란드 국립해양대학 한국분교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교육법인인 STC-Group의 한국분교입니다. 네덜란드 국립해양대학은 해운 물류학 석사과정과 해운物流 전문 기관 과정에 대한 고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여 명예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운물류학 석사학위 과정에 등록함으로써 당신의 경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해운물류학 석사학위 과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의 짐금급을 제공합니다.

해운물류학 석사학위 과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의